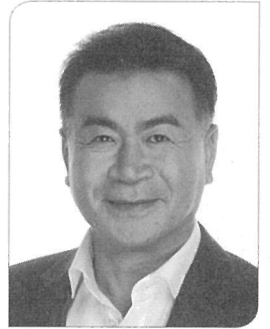


(주)디티앤씨

국내 시험 인증 기관 코스닥 상장 1호 회사
우주항공, 원자력, 조선해운, 방위산업 분야까지 사업 영역 확대



박채규
(주)디티앤씨 대표이사

국내 시험 인증 기관 코스닥 상장 1호인 (주)디티앤씨(대표이사 박채규)가 올 8월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부터 '제1호 성능검증기관'으로도 인증 받아 관련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재 국내서 활동 중인 외국계 기업들과는 달리 순수 토종 한국 기업인 (주)디티앤씨는 금년 4월 방위산업, 우주항공, 철도, 선박 분야를 전담하는 기간산업인증센터 준공을 기점으로 향후 차세대 신규 사업의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의 경우 2년여간의 조사 및 관련 기업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유럽 연합의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원자력 성능 검증 기관 1호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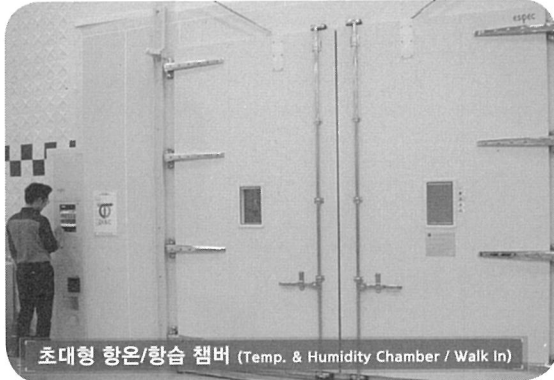
(주)디티앤씨는 우수하고 검증된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항공, 원자력, 조선해운 및 해양 제품의 시험 인증, 방위산업 분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다. 이는 해외 기관이 장악하고 있었던 무선통신 기기, 의료 기기, 자동차 전장품, 가전 기기, ITE

기기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업계 유일의 코스닥 상장을 이룬 지난 15년간의 발자취를 뛰어넘는 거대한 여정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주)디티앤씨는 특히 원자력 성능 검증 기관 1호 인증을 토대로 원자력 분야에서 성능 검증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성능 검증 업무는 가동 중 원전은 물론 신규 건설 원전에 사용되는 기기 및 부품에 대해 해당 설치 및 운전 조건하에서 원전 설계 수명 기간 동안에 주어진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원자력 분야는 2014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을 성능 검증 기관 관리 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주)디티앤씨가 '최초 검증 기관 인증'을 받았다는 데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주)디티앤씨의 경우 국내외 시험 인증 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향해 원자력 성능 검증 업무인 내환경 시험/해석, 내진 시험/해석, 전자파 시험 등을 동일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선을 고려해 반영하여 '원 스톱(One stop) 제공'이라는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됐다.



(주)디티앤씨의 각종 시험실, 국내 시험 인증 기관 코스닥 상장 1호인 (주)디티앤씨는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부터 '제1호 성능검증기관'으로 인증 받아 관련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우수하고 검증된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항공, 원자력, 조선해운 및 해양 제품의 시험 인증, 방위산업 분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다.

“5년 내 아시아 대표 기업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

한편 시험 인증 서비스 산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육성책에 힘입어 연평균 11% 이상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최근 각 나라별로 국제 표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주)디티앤씨는 2007년 민간 시험소로는 최초로 10M Full Chamber를 구축했으며, 민간 업체로는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의료 기기 시험 능력을 인정받아 2013년 10월 의료 기기 시험 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은 바 있다.

또한 2014년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테스트 시스템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이외에도 국립전파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미국연방통신위원회, 현대기아자동차, 삼성르노자동차 등의 공인, 지정 시험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디티앤씨는 코스닥 상장 이후 100억원을 출자해 자사와 같은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인 디티앤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고, 동종 업계 회사인 (주)랩티와 의료 기기 및 의약품 컨설팅을 전문으

로 하는 (주)지이스스탠다드를 인수해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중심에는 '83년 부산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LG전자에 입사, '94년까지 PC 부문에서 엔지니어로 현장 경험을 쌓고, 이후 Tokin EMC Engineering에서 '98년까지 부사장 직을 역임한 박채규 대표이사가 있다. 박채규 대표이사는 2000년에 Digital EMC Eng.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현재의 (주)디티앤씨가 되기까지 역동적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박채규 대표이사는 “무엇보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검증 업무의 해외 인증 기관의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토종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기술 유출을 원천 차단하며, 관련 기술 연구 개발 및 시험 평가, 기술 지원을 활발하게 진행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기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고 회사를 소개하면서 “아직도 외국 기관에 의한 인증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며, 토종 민간 기관의 장점을 살려 정확하고 철저한 시험 인증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함은 물론 이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

- 이상근 기자 / 프리랜서